

## 무공저

### ‘삶의 고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사실은 최근 삼성가의 유산 싸움으로도 확인이 되었다. 세계 권위의 경제잡지 포브스 선정 세계 69위의 부자, 자산 수 십조원의 부호가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재판까지 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뚝 떼어주지’ 싶은 건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감상이 아닐까 싶다. 유산은 고사하고 재판 인지대로 들어갔다는 127억 원이 얼마나 큰돈인지도 보통사람들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종상 <청계사 회주>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하나를 가진 사람은 열을 갖고 싶어서, 열을 가진 사람은 백을 갖고 싶어 집착하느라

약동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손가락에 발진이 생겨 반지를 뽐아 지갑에 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갑 속 동전을 어느 노숙자의 동냥 통에 털어 넣었다는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노숙자를 찾아갔다.

“내가 굉장히 소중한 걸 준 것 같은데요” 하자 “반지 말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탐욕과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하지만 세상에는 이 모두에서 비껴선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노숙자를 돕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

다. 놀랍게도 불과 보름 만에 1억 8천여만 원이 모이졌다. 노숙자의 정직성을 통한 선행은 또 다른

### ‘소유’를 덜어내고 ‘존재’에 집중 자기 가치관에 따른 인생의 주인

이미 가진 것도 즐기 못하는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 속에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모습이다. ‘소유’에 맞춰진 인생의 나침반을 ‘존재’로 돌릴 수는 없을까. 소유욕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를 즐길 수는 없을까. 최근 미국에서 한 블로거로부터 마음을 끄는 싱그러운 뉴스를 들었다. 들꽃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다.

미국 북동부 캔사스 시티의 한 노숙자는 동남 통에서 낚시 물건을 발견했다. 동전들 사이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알이 큰 것으로 봐서 진짜라면 꽤 돈이 될 물건이었다.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했을까 생각한 그는 반지를 잘 보관 해 두기로 했다.

그날부터 이를 동안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선행을 불러낸 것이다. 말하자면 ‘선행 바이러스’가 기세를 부리는 것이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소유가 필요했다. 먹어야 하고 가져야 했다. 그런데 존재를 위해 필요한 소유물이 지금은 거꾸로 존재를 속박하고 있다. 돈 있는 자는 돈에, 권력 있는 자는 권력에 끌려 다니느라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 수행자들의 삶이 청빈이 특징인 것은 소유를 덜어내는 만큼 존재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등’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묵묵히 살아 가는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들, 그들은 인생의 나침반을 ‘존재’에 맞춘다는 점에서 삶의 고수들이다.

## 불국사 석가탑 ‘사리’ 세상 밖으로

### 내년 3월말까지 무설전에서 사리친견

지난 4월2일 문화재청 국립문화 연구소는 불국사 3층 석탑(국보 제 21호)의 2층 옥개석을 해제하고 탑신의 사리공(舍利孔)에서 사리와 사리 장엄구를 수습하는 현장 설명회와 의식을 거행했다.

불국사는 이날 수습한 석가탑 사리를 내년 3월말까지 무설전에서 이룬해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수습 의식에는 불국사 관장 종상스님, 주지

스타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종민스님을 비롯해 500여명이 동참했다.

입재식은 반야심경에 이어 배명선(경주 석조 문화재 정비 단장)의 경과보고, 헌화, 불국사 관장 종상스님의 축원 주지 스타스님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의 인사로 진행되었다.

이어 스타스님은 “1300년 만에 처음으로 석가탑 진신 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

를 하게 됐다”면서 “우리 시대에 부처님 진신 사리를 친견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습하지 못한 사리와 사리 장엄구는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과 불국사가 상호 협의하여 재 봉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우선 은제 사리호에서 나온 사리1과만 불국사에 모셔 친견법회를 하기로 했다. (정리 박문성행)



○석가탑 2층 옥개석 해제후 사리공에서 수습한 사리와 사리 장엄구



<사진 양병주 제공>

## 부처님 출가~ 열반까지

부처님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불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을 융행정진 하는 수행주간으로 삼고 있다. 이에 융행정진 기도도량 청계사에서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월 19일(음 2월 8일)부터 3월 26일(음 2월 15일)까지 다라니 주력 기도를 봉행했다.

부처님은 어느 날 동문 밖의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인을 보고 인간은 누구나 늙고, 남문 밖에서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자들을 보고 인생의 괴로움을, 서문 밖의 상여행렬을 보고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북문 밖에서는 세상의 모든 형식에서 벗어난 것 같은 출가 수행자를 보고, 생로병사의 고민을 해결할 희망을 품고 출가를 결심했다. 열반에 이르러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 하여라” 종생들의 의지 치는 어떤 신이나 교리가 아니라 자신 안에 존재해 있는 참된 불성에 의지 하라는 뜻으로 불교가 추구하는 바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지 성행스님 집전으로 불자 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월 25 저녁 9시부터 ‘자비도량 참법’ 철야기도를 제5권부터 7권까지 회향일인 26일 새벽까지 융행정진 했다. 신도회에서 준비한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고 회향 서지비하는 ‘간식으로 떡과 과일을 고루 나누라’ 하고 신도회재무(묘선행)와 유법회(회장 진여성)가 피곤함도 뒤로하고 환한 미소로 봉사에 임했다. (정리 박문성행)

### 간화선 수행

#### 詩禪 일치

#### 깨침 후에도 닦아 가면 좋은 일 많아

경허스님은 홀연히 공안을 타파하여 깨친 후에도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안을 타파하여 깨친 뒤에는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 눈이 바른가를 걸작 받아야 한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모름지기 부끄러운 생각을 내야한다. 도는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더욱더 깊어진다고 옛 도인들은 말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얻어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깨친 뒤에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도다

또한 조금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가 단련하여야 옳도다

### 일대사 인연 요달한 직후 심경 읊어

못하면 그 좋은 맛이 도리어 독이 된다는 것이다. 서산대사도 <선가귀감>에서 깨친 뒤에 작은 깨침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바르게 깨쳤는가를 점검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허스님은 이로 인해 얻는 경지를 <참선곡>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내 마음을 깨달은 후에 항상 그 마음 고요히 하여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닦아 가면 한없는 좋은 일이 하도 많으니...”

###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 : 10,000원 100부 : 20,000원

#### \*법 보시 명단

- ♣ 서유구치소 문성행 100부 김희용 100부
  - ♣ 안양교도소 김항수 50부 김영현 50부 김영민 50부
  - ♣ 수원구치소 홍계천 100부 홍준서 100부
  - ♣ 청주여자교도소 박유진 1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강숙 50부 이근혁 50부
  - ♣ 여주교도소 김희영 50부 손영호 50부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유성화 50부 유수연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 : 청계사 출판부)

### 연꽃 문화제

부처님오신 날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사단법인 동련에서는 전국적으로「연꽃문화제」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사에서는 사단법인 경기남부지구의 주관으로 서울·경기「제4회 연꽃문화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시 제 : 나의 꿈, 내 마음속의 부처님, 나라 사랑의 길
- 일 시 : 2013년 5월4일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 장 소 :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
- 참가대상 : 서울, 경기, 인천 및 인근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참가부문 : 글짓기(운문, 산문), 그리기
- 준비물 : 미술도구 및 글짓기 도구, 화판, 돗자리, 모자

♣ 1부 : 글짓기, 그리기 2부 : 공연 및 시상식

사단법인 동련 경기남부지구장 성행

### 산신기도

기도를 통해 다짐 생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소구 소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산신기도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13년 4월 23일(음력 3월 14일)오전 10시 30분
- 철 야 : 2013년 4월 24일(음력 3월 15일)저녁 9시부터
- 회 향 : 2013년 4월 25일(음력 3월 16일)오전 10시 30분
- 기 도 비 : 3만원
- 온 라 인 : 109-030451-01-055(기업은행)
- 예 금 주 : 청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 계사년 봄맞이 성지순례

관음회에서 주최하는 봄 성지순례가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불법이 깃든 성지를 찾아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산사를 찾는 성지순례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13년 4월 15일(월요일) 오전 8시 출발
- 순 례 지 : 황간 반야사, 중화사, 영국사
- 동 참 금 : 4만원
- 출 발 지 : 인덕원 프라자(구 오성갈비)앞
- 문 의 처 : 종무소(031)426-2221, 2348

청계사 관음회

### 선원제전집도서

선의 근본이 되는 선장을 만들고 총괄하여 쓴 서문

중국의 규봉스님이 불교교리를 개론한 <선원제전집 도서(禪源諸詮集都序)>는 말그대로 '선원제전집'의 서문으로 줄여서 <도사>라 불리며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1200여년전 선종과 교종으로 분열되던 중국 당나라 때 규봉스님이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이책을 통해 선과 교는 서로 수행을 도와 성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규봉스님의 이같은 노력이 결국 선교통합을 이끌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된다. 배우기 어려운 이 과정을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덕민스님의 강설로 입문할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 선원제전집도서 권상(禪源諸詮集都序卷上)

말하자면 법으로써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면 곧 어렵지만 사람으로서 법에 나아가게 하면 곧 쉽다. 사람은 다분히 정(情)을 좇아 서로 집착하니 집착하면 곧 서로 위배되어 진실로 얼음과 불이 서로 섞인 듯하며 참과 방패가 서로 적어 된듯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법은 서로 이치에 합하고 서로 통하는 것이라서 통하면 곧 서로 순(順)하니, 자연히 언 것이 흘러 모두 물이 되며 쇠괴행이와 기락지가 다 쇠인 까닭으로 쉽다.

요점을 잡아 말하자면, 국집하면 곧 다 그른 것이요 회통하면 다 옳은 것이니 만약 부처님의 말씀으로 각각 그 뜻을 보이고 각각 그 장점을 취하여 총괄하여 삼종(三宗)으로 만들어 삼교(三教)에 배대하지 않으면 곧 어찌 회통하여 하나의 큰 좋은 방편으로 만들어 요긴하고 묘한 법문을 구성하여 각각 그 마정(安情)을 있고 함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니와 上根之輩은 悟雖圓通이나 未窮佛言이면 何同佛見이리오 問이라 所在에 皆有佛經이라 任學者의 轉讀 勘會어늘 今集禪要에 何必辨經이리오 筵이라 此意는 卽其次之文이 便是答此問也라

세 번째는 경전은 마치 먹줄과 같아서 사된 것과 바른 것을 본보기로 정한다는 것은, 먹줄이 솜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자가 반드시 먹줄을 의지하고, 경론이 선(禪)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선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경론으로 기준을 삼는다. 중하근기는 다만 스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라 스승이 스스로 근기를 보아 분수에 따라 지도해 주지만, 상근기의 무리는 깨달으면 비록 원만히 통하나 부처님 말씀을 궁구하지 못하면 어찌 부처님 견해와 같아 지겠는가.

질문하기를, "있는 곳 마다 모두 불경이 있

## 이 시대 우리들의 '화두' 회주 종상스님의 '신문염송' 강설

### 제347강 龍樹一鉢水와 僧伽難提의 銅鈴(1) (용수일발수와 승가난제의 동령)

『용수보살이 迦那提婆(가나제바)가 오는 것을 보고 시자를 시켜서 발우에 물을 한 사발을 갖다가 앞에 놓았다. 그 때 가나제바가 그것을 보고 바늘 한 개를 던졌다. 용수가 크게 기뻐하였다.』

한마디 말없이 이심전심한 소식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발우에다가 물 한 사발을 떠다 놓았기에 거기다가 바늘을 던졌는가. 인간계 상으로 보면 손님이 오면 「어서 오게,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인데 참으로 부사의 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如龍得水(여용득수)요 似虎靠山(사호고산)이라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다. 그럼 그때 바늘이 아니고 돌을 던졌

다면 어땠는가. 그거야 돌을 던졌건 침을 빨았건 상관할 것이 없다. 오직 물 한 사발을 갖다가 앞에 놓았다. 그 心機相通이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 일체가 유심조요 만법이 유식이라

그만이다. 마치 허주와 경산대사와의 만남과 같다. 그러므로 랑야스님이 송하기를「龍猛中承(용맹맹중)은 提婆投上針(제파투상침)이라 사람사람이 어찌 득실 하였는가, 낱낱이 話疏親(화소친)이라 雲中廓(설중안)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沙塞深(사색심)을 알겠는가, 농부가 移片礫(이편산)하니 嚙下(상하)에서 황금을 얻은 격이로다.」하였다. 다음은「僧伽難提(승가난제)가 바람에 의하여 동령이 울리는 것을 듣고

물었다.「동발을 울린 것이냐 바람이 울린 것이냐?」 동자가 말했다.「바람도 아니고 방울이 울린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울렸습니다.」 조사가 이르기를 「바람과 방울이 울리지 아니하였다면 마음은 어떠한 놀인가?」 동자가 말하였다.「俱寂靜故(구적정

교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명언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 세계가 왜 없어졌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세계와 허공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관계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 게만 있지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다. 그러므로 일체(一切)가 唯心造(유심조)요 萬法(만법)이 唯識(유식)이라 하는 것이다. 심방세계가 어디서 났느냐, 오직 내 마음에서 났다. 나에게 안경, 지갑, 집, 옷이 다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대로 모두가 내 것이 아니다. 하므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病者是誰(병자시수)오 痛者是誰(통자시수)오」한 것이다. 아프다고 한 것은 그래도 아픈 줄 알 정도이지만 진짜 정신이 떠나버린 경지에서는 때린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른다.

#### 뉴스 & 뉴스

### 2월 초하루 신주기도

지난 3월 12일 (음 2월 1일) 야외법당에서 사중스님 들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300여명이 2월 초하루 신주기도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주지 성행스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좋은 것은 부처님 말씀에 다 있다고 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덕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계에 대해 법문을 펼쳤다. 우리 몸에는 육근과 육식(안 이 비 설 신 의)이 있다. 1.안(眼): 좋은 것만 보려한다. 2.이(耳): 자신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 한다. 3.비(鼻): 좋은 냄새(향)만 맡으려 한다. 4.설(舌): 쓴맛, 신맛은 싫어하고 좋은 맛만 보려하고, 이간질 거짓말을 한다. 5.신(身): 남을 해코지 한다. 6.의(意): 좋다 싫다 구분을 한다며, 게으름을 경계하고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현명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다.

(정리 박문성행)

### 청계산사의 국수 정치

꽃봉오리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드는 화창한 봄날을 맞아 지난 3월 24일 청계사 신도회(서자비화)의 주관으로 유료국수판매 행사를 가졌다.

자비 나눔 봉사단(불기회, 지장회, 약사회, 선정회, 관음회, 보문회, 다라니회, 보경회)은 행사를 앞두고 정



성을 다해 열심히 먹을거리를 준비했다. 큰 가마솥에서 졸깃하게 삶아진 국수와 구수한 육수를 배달하는 일은 법륜회 거사들의 몫이었고, 불기회 노 보살님들은 김치전과 아재전으로 솜씨를 발휘하는 모습이 마치 옛날 잔치 집 같았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았던 등산객들이 청계사의 국수와 부침개 맛에 흠뻑 빠지는 듯했다. 이 행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와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자비 나눔에 쓰인다. (정리 서용화수)

### 어린이청소년 제법다 추법

조계종 어린이 청소년전법단이 오는 4월 30일 한국불교 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출법식을 갖는다. 이에 주지 성행스님이 초대 전법단장을 맡게 되었다. 지난 3월 27일 출범 준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2번째 전법단인 어린이 청소년전법단은 어린이, 청소년포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린이청소년사업 운영, 어린이 청소년보호 현황 관리 등 어린이 청소년포교 활성화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 청소년 전법 단장을 중심으로 70여명의 스님이 어린이 전법단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포교원은 200명까지 지도 법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리마타 청소년연합회, 동련, 교법사단, 불교 어린이 청소년지도사, 포교사단 어린이 청소년팀,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등 어린이 청소년포교관련 단체 지도자들로 '어린이 청소년전법지원단'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리 조여래장)

### 산신기도 유래와 영험

우리 국토는 유난히 산이 많은 환경으로 인해 옛 부터 자연스럽게 산을 숭상 했다.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산신 신앙은 무속이나 용왕신, 칠성신앙과 함께 원시 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민중의 숭배를 받아 왔다.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교리를 갖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토착신은 불교에 수용 되었고, 산을 통해 신령과 영통을 기원하고 농경사회에서는 물이나 비바람을 관제하여 한 해의 풍년을 좌우했다.

자식을 점지해주고 그 생명을 악귀로부터 보호하며 길흉화복을 관장해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복,

강녕, 부귀, 다남은 매우 기초적인 바람이지만 오랜 시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지혜로 바람이요 가장 큰 소망이었다. 조선후기에 법당과는 한 차원 아래인 각이 생겨나 산신·독성·칠성, 삼신을 모시는 전각이 생겨났다.

#### 인생의 궁극적 목표 길흉화복 관장·기도영험 팔라

산신을 모셨던 곳인 단, 사, 묘, 당 등에서 봉사 또는 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전각이 제단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큰 산 밑에는 큰 절이 있고 절에는 대부분이 산신을

모시고 있으며 산의 주인은 산신이다. 영험이 빠르다고 정령이 나 있는 산신기도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재수소망, 가내평안, 액운소멸, 우환소멸, 자손창성, 사업발전, 승진, 합격, 치병 등 나와 인연이 있는 곳에서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면 원하는 바가 다 달라도 다양한 원을 다 들어주신다.

'산신기도는 미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 법에는 방편법이 있듯이 부처님은 중생이 필요로 하면 어떤 법도 다 받아들이고 펼치신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고투 보살피시고 신중님들은 도량을 옹호하시고 산신님은 당신 앞에 엎드리는 중생을 보살핀다. (정리 서용화수)

#### 미리보는 성지

##### 반야사

##### 문수보살, 호랑이(산신령)의 화현도량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에 위치한 반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다. 충북과 경북을 경계로 자리한 백두대간중의 백화산에서 흘러내리는 큰 물줄기가 태극 문양으로 산허리를 감아 돌면서 연꽃모양 지형을 이루는데 그 중심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다. 원효 의상 대사 등의 여러 가지 창건설화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무열국사가 황간 심묘사에 게실 때에 사미승 순인을 이곳에 보내 못의 악물을 몰아내고 못을 매워 절을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반야사란 사명은 세조대왕이 문수동자를 만나 병이 낫고 감격하여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반야를 어필로 하사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묘사체로는 대웅전, 좌우로 극락전과地藏전이 있으며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본존으로 하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불로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불상 뒤에는 영산회상도와 신중탱화·감로탱화가 있다. 약간 떨어진

곳에 관음전과 문수전이 있는데 특히 문수전은 100미터나 되는 절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장관이라 한다. 석보문화제로 삼층 석탑(보물제1372호), 영동군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부도탑과 경주 옥석으로 제작된 대웅전 삼존불상이 있다.

반야사에는 불보살의 가피력이 아니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수천 년 흘러내린 돌이 산허리에 쌓여 자연스럽게 호랑이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높이 80미터 길이 300미터나 된다고 한다. 또한 문수보살의 상주도량이며 호랑이(산신령)의 화현도량이라 학생승기도 고득점 합격과 공무원승진 등 각종 시험합격에 특히 영험하고 호랑이가 산신령으로 화현한 산신각은 사업성취 영험도량으로 사업번창을 바라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 중화사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천마산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다. 676년(신라 문무왕)에서 701

년(효소왕) 사이에 의상이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남각산 기슭에 있었으며, 용화사라고 하였다. 화엄종의 대찰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1260년(고려 원종) 일연에 의해 중창되었다. 1530년(조선 중종) 폐사가 되었다가, 명종 때 휴정이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절 이름도 중화사라고 바꾸었다.

현존하는 건물로 대웅전과 삼성각, 나한전, 요사 5동 등이 있으며, 청법루는 근래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목조기와, 맞배지붕, 다포집으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地藏보살이 봉안되어 있고, 1988년 5월 28일 전통사찰 제 21호로 등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북도 유형문화재(제288호)로 대웅전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이 있다.

##### 영국사

##### 충북의 설악 천태산에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천태산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다. 고려 문종 때 원각국사가

창건한 절로 당시에는 국청사라고 했다. 그 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원 마니산성에 머물 때 이 절에 와서 기도를 드린 뒤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가 평온하게 되었다 해서 영국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일설에는 조선 태조 때 세사국사가 영국사로 바꾸었다고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현재 대웅전(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1호)과 묘사체만 남아 있으며, 석가모니부처님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地藏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부도(보물 제532호)·3층 석탑(보물 제533호)·원각국사비(보물 제534호)·영국사승탑(보물제532호)·망탑봉3층 석탑(보물 제535호)·영국사 후불탱화(보물 제1397호)·천연기념물 제223호로 지정된 은행나무(수령1000년)등 많은 지방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 양의 은행이 열린다고도 한다. 양산팔경이 이 곳 천태산 영국사를 제1경으로 시작되고 많은 문화유적들이 그 신비함을 더해주는 곳이라 한다. (정리 심대덕심)



# 108성지 순례 [3]

한국불교 대표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과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 신흥사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에 소재하는 자장유사가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고 하신흥사는 신라(新羅) 진덕여왕 6년(서기652)에였다. 이 이름은 불교의 중앙성불토국(家香城佛土國)이라는 글에서 따온 것인데 중앙성(家香城)은 금강산(金剛山) 철원산(鐵原山)을 의미하며 불토국(佛土國)은 부처님께서 교화 할 대상적 국토라는 의미와 정치적 형태의 국가라고 하는 뜻과 어울린 말이다.



◇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통일 대불상

## 천년동안의 고유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부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는 곳...

계 하고 있다. 향성사가 화재를 당한지 3년 후 의상조사께서 능인암(현재 내원암)터에 다시 중건하고 사명(寺名)을 선정사(禪定寺)라고 개칭 하였다. 그 후 946년간 수많은 선승들이 이곳에서 수도 정진하여 왔으나 조선 인조20년(서기1642)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것을 2년후 영서(靈瑞), 혜원(惠元), 연옥(蓮玉) 세분의 고승들께서 중창을 서원하고 기도 정진 중 비몽사몽간에 백발신인이 나타나서 지금의 신흥사 터를 점지해 주며 "이곳은 누 만대에 삼재가 미치지 않는 신역(神域)이니라" 말씀하신 후 홀연히 사라지는 기서(奇瑞)를 얻고 절을 중창하니 지금의 신흥사이다.

절 이름을 신인(神人)이 길지(吉地)를 점지해 주어 흥왕(興旺)하게 되었다 하여 신흥사(神興寺)라 한 것이다. 6·25사변때 고성군 건봉사는 전소되었고 영북지역의 대부분 기능이 마비되었을 무렵 고암, 상준 두 스님의 원력으로 여기 신흥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

사로 승격하여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다. 이후 신흥사는 영동지역의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불사를 전개해 나갔다. 1947년 대웅전을 시작으로 여러 건물들을 차례로 다시 세움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극락보전, 명부전, 영산전, 보제루 등을 비롯하여 3개의 문(門)과 여러 부속 암자가 있다. 신흥사 극락보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은 현종 5년(1664)년에 세운 건물로 앞면 3칸·옆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명부전에는 부처를 도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을 모셨고, 보제루에는 휴정 등 고승 60여 분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1400여년 전 '향성사' 시절의 범종은 한국전쟁 때 총상을 입은 뒤 수리하여 보존 중이다. 속초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하는 한편, 춘천에는 불교방송지역을 개국하여 포교에 전념하는 사찰이 되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신흥사가 과거의 신흥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흥사가 되었다며 신흥사(新興寺)의 귀신 신자(神字)를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신자(新字)로 교체 사용하자는 중론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995년부터 영동불교를 새로 일으킨다는 서원을 담아 사명을 신흥사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리 황청량심)



## 성행스님과

## 함께하는 부처님의 생애(4)

### 탄생과 성장

#### 새로운 희망과 라훌라의 탄생

스물아홉 되던 해, 태자는 넘치는 사랑과 배려에도 기뻐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지들 외에 사랑을 환대하는 일도 없었고, 홀로 연못가를 거닐고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던 중 부왕의 배려로 가까운 동산으로 봄놀이를 나갔던 날 운명처럼 수행자를 만났다. "바람이 머무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듯,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 사람과 애착에 얽힌 굴레 속에서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벗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들뜨지 않고, 자신을 얽히 다스리고, 태산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해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갈 뿐입니다."

태자는 남루한 수행자에게 정중히 예를 올렸다. 그날의 나들이는 참으로 유쾌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자비가 아들 라훌라를 낳았다는 전갈을 받았다.

"라훌라가 태어났구나, 속박을 낳았구나."

"부왕과 아내 야소다라에게 자그마한 아기는 결코 놓을 수 없는 튼튼한 쇠뿔이 되리라. 해맑은 아기의 얼굴에서 그들은 손이꾸어서 빠져나간 옛 빛깔의 허전함을 잊으리라. 새로운 속박이 새 위안이 되리라."

### 구도의 길

#### 집을 나서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이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최상의 진리를 얻기 전엔 결코 나를 키워주신 마하빠자빠피와 아내 야소다라를 찾지 않으리라." 젊고 건강해도 병들어 죽는 일엔 정해진 때가 없으니 마냥 안심하고 지낼 수만은 없다. 태자는 황금 신발도 벗었고, 머리카락의 상투를 장식했던 화려한 구슬, 몸에 지녔던 장신구를 하나하나 풀고 낫선 풍경 속으로 걸어들었다. 스물아홉 되던 해인 기원전 595년 2월 8일이 일어났다.

### 슬픔에 젖은 카멜리앗투

카멜라 사람들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비탄의 눈물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찬나가 건넌 보석을 받아 쥔 야소다라는 하늘을 우러러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약속하던 보석이 이젠 변친 않는 슬픔으로 남겠군요."

통곡소리에 놀란 수도다나왕은 "아들아, 너를 위해 지어준 세 개의 궁전으로는 부족했으나, 왜 그것을 버리고 인적도 드문 황야를 떠돌고 숲을 헤매느냐. 전문성왕이 되리라던 바라문들의 예언에 어찌나 기뻐던지 갓난아기인 너에게 예배했었지, 그런 네가 아버지와 나라를 버린단 말이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을 수도다나왕은 포기할 수 없었다.

## 숫자로 배우는 불교

### 구종식(九想觀)

음식 섭취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선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음식 문화가 발달한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무절제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기르는데 있어 먹고 삼취해야할 것이 아홉가지라고 가르치셨다.

첫째는 단식으로 음식물을 먹는 것이다. 밥이나 반찬 음료수 등 씹거나 마시는 것인데 이는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둘째는 축식으로 축감을 먹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이끼리 서로 접촉하여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는 것도 먹는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는 사식으로 의지로서 음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일에 뜻을 일으키는 일, 희망을 가지는 일이다.

넷째는 식식으로 알음알이나 경험

을 먹는것을 말한다.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 이념이나 경험등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관별하는 것 등이 다.

다섯째는 선열식으로 수행에 의해 얻어진 선정의 기쁨을 먹는 것이다. 마음이 집중되어 깊은 삼매속에서 얻

다. 여덟 째는 염식으로 바른 마음을 먹는 것이다. 염이란 보호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잊지 않고 늘 새겨야할 마음관찰을 가리킨다.

아홉째는 해탈식으로 깨달음을 먹는 것을 말한다.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일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지는 누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은 단식이나 축식 그리고 사식이거나 식식뿐이다. 이와 반면, 수행자들은 선열식 범희식 원식 염식 해탈식을 한다.

육신은 기르는 음식만 취하지 말고 마음을 기르는 참된 음식이 무엇인지 배워서 심신을 함께 보양시키는 것이 음식의 참된 길일 것이다.

## 몸과 마음기르기 위한 아홉가지 음식섭취법

어지는 즐거움으로 세상의 감각적 쾌락과는 다르다.

여섯째는 범희식으로 범의 기쁨을 먹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을 뵈고 설법을 들으면서 신심을 쌓고 환희심을 일으켜 공덕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일곱째는 원식으로 큰 서원을 먹는 것을 말한다.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를 완성하겠다는 원을 발하되 물러남이 없고 끊임없이 실천해나가는 것이

다. 여덟 째는 염식으로 바른 마음을 먹는 것이다. 염이란 보호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잊지 않고 늘 새겨야할 마음관찰을 가리킨다.

아홉째는 해탈식으로 깨달음을 먹는 것을 말한다.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일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지는 누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은 단식이나 축식 그리고 사식이거나 식식뿐이다. 이와 반면, 수행자들은 선열식 범희식 원식 염식 해탈식을 한다.

육신은 기르는 음식만 취하지 말고 마음을 기르는 참된 음식이 무엇인지 배워서 심신을 함께 보양시키는 것이 음식의 참된 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은 단식이나 축식 그리고 사식이거나 식식뿐이다. 이와 반면, 수행자들은 선열식 범희식 원식 염식 해탈식을 한다.

육신은 기르는 음식만 취하지 말고 마음을 기르는 참된 음식이 무엇인지 배워서 심신을 함께 보양시키는 것이 음식의 참된 길일 것이다.

## 생활 속의 불교용어

### 거사(居士)와 처사(處士)의 차이

조선시대에는 여불승유 정칙으로 많은 사찰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몇몇 스님들과 부녀들에 의하여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시대에 남자들이

남자들을 일컫는다. 거사: 부처님 당시 제가남자들이 신도가 덕이 높고 수행을 원만히 성취한 유마할 거사 이름에서 유래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업

### 재가 남자신도의 호칭의 문제점

이 절에 간다는 것은 뜻이 있어 출가를 결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찾아온 자들이 많았다.

처사: 유교 사상을 이념으로 한 조선시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정과 원망으로 할 일없이 세월을 보낸 무능한

을 쌓고 불교 수행(信行)을 하는 남자신도를 말한다.

오늘날 절을 찾는 남자신도 분들 이야말로 가족을 봉양하고 사회생활에 충실하면서 참 나를 찾고자 수행을 한다. 상호존중의 차원으로 남자신도를 당당히 '거사'라 불러주시기를 바란다.

##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중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약사재일 기도

음력 매월 8일 오전 10시 30분 (삼세인과경)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108배 참회)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광명정인경)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교양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분기별 철야기도

3, 6, 9, 12월

### ◇ 넷째주 금요일 밤 9시(자비도량 참법)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30분

### ◇ 문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 109-030451-01-055

중소기업은행(예금주: 청계사)

###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등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부처님오신 날 등 접수

부처님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삼독심과 무명심을 걷어내고 참다운 지혜와 자비의 서원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는 봉축 등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 • 법당 연등

### • 백 일 등

### • 관 등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함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에서 운영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따뜻한 마음 나누어 받는 봉사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준 몸으로 부딪힌 산행

봉사동아리(더불어) 활동을 하고 녹향원
봉사를 하면서 매년 저의 이기심과 부족함
을 느끼고 더 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따
뜻한 마음을 나누어 받는다.

녹향원 산행 봉사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
공지에도 신청자가 없어 애태우면서 '차라
리 그 날 비가 오면 좋겠다.'는 못 된 마
음이 들기까지 했다. 그리고 기상정보에도
일요일 비라고 하니 내심 다행이다 싶었
다. 그 속내를 내비치니 회원 중 한분이
"그분들은 얼마나 기다린 날일 텐데. 서운
해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차! 내가 이것 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순간 내 입장만 우
선했던 짧은 생각이 부끄러웠다. 아쉬운
대로 회원 이외에 몇 분의 도움으로 첫 산
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른 아침 깨자마자 마자 날씨부터 살폈다.
그간 초겨울 같았던 반짝 추위도 풀려가고
구름사이로 간간히 햇살이 비치는 산행하
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였다. 녹향원에도
착하니 저희 보다 먼저 밖에 나와 기다리
시는 분도 계셨고 한 분 한 분 산행준비를
마치고서 나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한결같
이 밝고 들뜬 모습들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비가 온다는 예보에 식구들이 아주 많이
서운해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
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초등학교시
절 소풍날 손꼽아 기다리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며 미운 생각을 했던 내자신을 또
한 번 나무랐다.

이러한 사람에게 한 분씩 짝을 지어 출발
했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낙엽 밟는 소리,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 가끔 불어
오는 산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색깔 고운
낙엽들... 머리위에 어깨위에 그리고 발등
에... 사이사이 숨어 흐르는 계곡 물소리,
짜늘하게 맑은 산바람, 모두 하나되어 흥
분과 감동을 느끼며 오르는 산이라 더 없
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청계사 경내를
한 바퀴 돌고 약수도 마시고, 내려오는 길
에 맛있기로 소문난 '청계사 옛'도 사먹었
다.

녹향원 가족들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가
을이 다가도록 온몸으로 가을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던 내가 몇 배는 더 즐거웠다.
녹향원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
다 몸으로 부딪히는 산행이 우리를 좀 더
가깝게 하지 않았나 싶었다. 어느 봉사때
보다 충만하고 가슴 벅찬 날이었다.
< 청계 자유발드르프학교 학부모 김운진 >



이달의 후원금

2,843,0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 지로이용 : 지로번호 7665710
중소기업은행 : 109-030451-01-112
(예금주-청계사)
농협 : 573-01-026244
(예금주-녹향원 청계사)
국민은행 : 261501-04-000949
(예금주-녹향원 청계사)

알려드립니다

지사로 이용하시면 금융결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후원금 일부가 세
금으로 납부되는 가능한 자의제대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
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 봉
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 분은

녹향원 - (031)426-5542, 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현재 봉사자 명단
단체: 통큰바퀴(한국국제), 큰나눔봉
사단(삼성에스원), 로템(현대),
향기나는사람들, 보현회(용화사),
청계동부녀회, 만토지기, 바르게
살기위원회(북가좌2동), 서울
구치소(불심회, 경비교도대),
과천경찰서경비교도대

개인: 장병수, 윤여송, 정송양, 송생금,
최은주, 김인숙, 이정미, 한상린,
김영수, 윤세현, 박종복, 유정임,
전계수, 박성우, 김 수, 김정주,
정유연, 김영자, 윤현숙, 오인희,
안민송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261501-04-000952 녹향원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13년 3월 7일 ~ 2013년 4월 5일)

- (직접납부)
후원금 : 10,000원
정일환 흥대선 이용선 김영숙 이준형 김순임 이종호 손선중 이정연
김갑기 변일용 이갑숙 이도호 태재준 박경선 현유영 최은영 유종경
유성화 유수연성담스님
후원금 : 5,000원
진 경 김나현 정계영 김향순 김주성 김옥자 구진희 이훈순 가진
최명자 대월광
후원금 : 50,000원 - 심경미 보경회 관음회
후원금 : 20,000원 - 김삼은 조점이 정유찬
(지로납부)
후원금 : 10,000원 - 2월 - 김한용 김대용 이옥순 정유리
3월 - 이인숙 이경숙
후원금 : 50,000원 - 이상학 지장회 신숙희 노성재 이승환
후원금 : 30,000원 - 김경현 박연봉 이영순 김영수 김민경
김민수
후원금 : 20,000원 - 신지현 이종현 박승규 김대희 민창근
김공자 서미영 목영옥 김미숙 윤여송 윤세현 김기수 김중철
후원금 : 10,000원 - 조옥남 이상락 원영수 손성순 이점오
이지희 오순화 여세균 원은희 고은린 장음심 조현상 조수현 원충연
이금선 서연순 정희운 현동순 하용권 신영선 김희복 박한순 김용자
조형근 권은경 윤오복 권은정 조하태 최준범 남종훈 윤석태 김희연
후원금 : 5,000원- 김동재 배운경 권복순 오유순 김미현
한규용 손종택 조계현 박소용
후원금 : 4,000원- 박은정(3,4월)
(지로납부)
후원금 : 10,000원 - 2월 - 김한용 김대용 이옥순 정유리
3월 - 이인숙 이경숙
후원금 : 5,000원 - 3월 - 김지현 박명정 박명정(12, 2월)
후원금 : 20,000원 - 최창순(3월)
신규후원자 명단
50,000원 - 진항기 윤미호 30,000원 - 이서지 10,000원 - 김향식
특별 후원금 명단
금일봉 - KB호계동지점 20만원 - 114기중앙공무원교육원, 김중서, 여래장 15,000원-신영옥
물품 후원
동안양여성봉사회, 만토지기, 청계동청년회 박성우, 김영수, 김경민, 유예린
\*자비 나눔 저금통
새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나의 운명 내 스스로

4월의 봄바람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번 겨울이 유난히도 길고 추
웠던 탓인 것 같습니다.

살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던지, 나는 왜 이렇까라는 생각을 한
다면 한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
될 때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대
응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
야 되지? 잘 될 수 있을
까? 이런 저런 걱정으로
나의 운명이 걱정되곤 하
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세를 할까요. 많
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
황에 의지하게 되겠죠.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들리는 바로

한 아이였지,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
부하고 생각하다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 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
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아
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제께 어머니께서 잠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
다는군요."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잡아담기면서 애야
네 손금을 보여 주렴 이
것은 사명선, 이것은 사명선..... 이
제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애야
네 감정선, 사명선, 생명
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 손안에 있지요" 그렇기 바로
운명은 네 손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성행 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삼매 들어 지혜 얻으면 얽은 분별 없고

내 운명 개척하면 주인공, 방치하면 주변인

는 아직까지 한평생 그의 말을 막
히게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가 손에 작
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
있는가요?"라고 그리고 아이는 생각
했습니다. 스님이 살아있다 라고 하면
목을 졸라 죽여 버리고 죽었다고 하
면 날려 보내야지 라고 그러던 내가
드디어 스님을 이기는 게 아닌가 하
며 스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
나 스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애
야 그 새의 생사는 네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꼬마
애는 깜짝 놀라면서 그 새를 날려 보
내면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
님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정말 멍청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
른 사람으로 인해 네 운명을 포기하
지 말거라" 정말 우문현답이 아닌가
싶네요.

무슨 일든 깊은 마음으로 대하면
얻는 것도 값다는 뜻인데 인간의 지
식은 흔히 사물을 놓고 볼 때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손해가 되
는가, 이익이 되는가. 적인가, 친구인
가. 좋은가, 나쁜가. 따위로 속단을 하
고 만다. 그러나 삼매에 들어 지혜를
얻게 되면 그러한 분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로 내 순간
에 있습니다.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개
척하면 주인공이 되고 방치하면 주변
인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서 열반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스스로를 등불을 삼고, 법을 등불
로 삼아라!" 성불하십시오.

생활의 지혜

- ★ 사진에 이물질 묻었을 땐 ★
때 캐러 가루를 살짝 뿌리면 살이 부서
지지 않고 모양이 잘 유지된다.
★ 튀김 골고루 익히려면 ★
튀김요리 할 때 기름에 깨끗한 솥 조
각을 넣고 함께 튀기면 열전도율이 빨
라져 튀김 재료 속까지 골고루 익는다.
★ 환상생선 요리엔 카레를 ★
조기·갈치 같은 환상생선을 조리할
<정리심대덕삼>

Table with 8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Rat), 호랑이띠 (Tiger), 용띠 (Dragon), 말띠 (Horse), 원숭이띠 (Monkey), 개띠 (Dog), 소띠 (Ox), 토끼띠 (Rabbit), 뱀띠 (Snake), 양띠 (Goat), 닭띠 (Chicken), 돼지띠 (Pig). Each column contain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ign's characteristics and a small illustration.

재미로 보는
이달의 운세
<정리심대덕삼>